

近來의 呼稱使用에 대하여

姜 信 洵

(成均館大 교수, 국어학)

1. 名稱과 呼稱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 가운데 하나를 「고양이」라 하고, 부를 때에는 「꽃순아」라고 한다. 「고양이」는 동물의 이름이고, 「꽃순」은 「고양이」를 부르는 呼稱이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社會를 구성하고 살 때에, 그 社會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임무나 자리에 따라서 붙인 것이 名稱(이름)이고 이것을 부르던 呼稱이 된다, 때로는 「이름」과 「호칭」이 같을 수도 있고, 자리와 임무에 따라서 「判事」「檢事」라고 붙여진 이름이, 부를 때에는 「영감님」이라고 한 呼稱이 使用되기도 한다.

社會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單位가 家庭이다. 가정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만든 社會다. 그러므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序列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이름이 붙고, 부를 때에는 「아버님, 어멈, 며느리가」등과 같이 呼稱이 따로 생긴다.

말은 時代에 따라 쉼 새 없이 변한다. 따라서 名稱과 呼稱도 社會의 변동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하여 옛날에 쓰이던 僉知·判書·吏房·座首와 같은 名稱과, 大監·使道 같은 呼稱은 자취를 감추고, 總警·少領 같은 名稱에다가, 署長·將校 등과 같은 새 呼稱이 발달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쓰이게 된 名稱과 呼稱에는, 漢字語와 固有語

의 交替가 있다. 모든 것을 漢字·漢文中心으로 생각하던 시대에 있어서는 固有語보다는 漢字語로 이름을 짓거나 불리야만 相對便을 더 존중하는 것으로 여겼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嚴親·家親·先親」 등이 쓰이었고, 「아우」보다는 「從弟·內四寸·外四寸·再從弟·三從弟」 등이 쓰이었다. 이것은 우리 固有語에는 漢字語만큼 寸數에 의한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는 親族呼稱이 없었던 데서 나온 결과이었는데, 근자에는 그런 대로 「堂姑母」 대신에 「아주머니」, 「再從祖」대신에 「일가할아버지」등이 쓰이고 있다.

2. 새로운 呼稱使用의 實態

(1) 내외간

우리말 호칭 가운데에서 가장 분명치 않은 것이 내외간의 호칭이다. 「여보」 「당신」하는 것은 50年代 이후에 널리 퍼진 호칭으로 생각되는데, 地方에 따라서는 내외간에 서로 「자기」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남편을 「애아브지」, 아내를 「니」라고 하는 곳도 있었다. 근래에는 60年代 이후에 발달된 「자기」를 흔히 쓰는데,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국어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동기 동창끼리 결혼하였다손 치더라도 서로 이름을 마구 부르거나, 무식하게 자기 아내를 손님 앞에서 「야!」「어이」하고 부르는 것은 올바른 국어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요근래의 국어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의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적절한 명칭이나 호칭이 없다는 사실이다.

① 남편

그 전에는 남에게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할 때 「사랑에서」라고 했었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 社長님이」「우리집 선생님께서」「바깥어른께서」「아빠께서」라고 해서 최고로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 어른께 말씀 드릴 경우에는 「(아무개)아비」라 하고, 친구 사이에서는 「우리집 바깥사람」 정도로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② 아내

옛날에는 「內子」 「내 妻」라고 했는데, 지금도 어른께는 「제 처」라고 하고 친구 사이에서는 「우리집 사람」 「안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쟁이」 「우리 예쁜네」 「우리집 할망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年老하신 분이 쓰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귀에 거슬리는 이름이다.

③ 다른 사람의 부인

漢字語를 즐겨 쓸 때에는 「閤夫人」 「令夫人」이라 하고, 때로는 親庭마을 이름을 따서 「오리실댁」 「새터댁」이라고도 했다. 또 집안에서는 出嫁한 집의 姓氏를 따서 「林집」 「金집」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50年代 이후에는 남의 부인이면 누구나 「師母님」이 되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師母님」은 역시 「스승」의 부인에게 限定해서 쓰고, 다른 분들은 「아주머니」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동기간

남자 동기끼리는 兄, 아우(동생)라 하고, 여자 동기끼리는 언니, 동생, 남녀 동기끼리는 오라버니, 누나(누님), 누이라고 했다. 兄이 장가를 들면 형수가 생기고, 형수는 손아래 남자 동기를 도련님, 장가 들면 서방님, 남편의 형은 시아주버님, 남편의 누나·누이는 시누님·시누·작은아씨라 부르고, 아무리 어린 도련님이나 작은아씨에게도 꼭 존대말을 썼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탓인지, 도련님, 작은아씨, 서방님 하는 사람이 드물고, 나이 어린 도련님 보고 「미스터 김, 나 물좀 길어다 줘!」라고 큰소리 치는 「새댁」 까지도 있다.

(3) 남녀 학생 사이

우리말에는 남녀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呼稱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中國語 같으면, 미스터를 先生, 미스나 미세스를 小姐 또는 女士라고 정해 놓고 쓰기 때문

에 女學生을 부를 때나 社會 활동을 하는 女子들을 부르기가 쉽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선 날마다 한 사무실에서 얼굴을 대하는 女子들을 부르기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미스」라고 부르자니 우리말에는 여자 하나 부를 수 있는 呼稱조차 없는가 싶어서 망설이게 되고, 「嬢」하자니 또 어색하다. 언제부터 생긴 호칭인지 모르나 「嬢」字는 분명히 「어머니 양, 할미 양」인데 이것을 왜 處女들 이름 밑에 붙여서 부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呼稱은 中國語와 日本語에도 없다.

이와 같이 적당한 호칭이 없으니, 「아가씨」라고 부르면 화를 내고, (어느 사이에 아가씨라는 명사는 接客業所從事員의 呼稱이 되고 말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더러 「미스 박」하고 부르면 언짢아 한다. 「氏」라고 불러 주면 제일 무난하다는데, 그럴 바에야 아예 「복희 작은 아씨」와 같이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여학생이 남학생을 부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여서, 나이 많은 上級生을 부를 때에는 「오빠」라고도 하는 수가 있으나 대개는 「兄」이다. 上級生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同級生끼리는 적당한 呼稱이 없으니까 차라리 서로 반말들을 하거나 이름을 불러대고 있다. 유치원이나 국민 학교 어린이들이라면 몰라도 이미 成人이 된 젊은이들이 서로 이름을 마구 불러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절잡은 말버릇 같지는 않다.

원래 우리 나라 습관으로는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지 않았다.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장성한 아들 딸들의 이름 대신에,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누나라고 불렀었고, 장모까지도 사위를 대할 때 반말을 한다거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 그만큼 상대편의 인격을 존중하여 이름 석자도 소중하게 여겼었다. 그대신 집안에서는 어릴 때 兒名을 지어서 불렀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는 친구나 친척 사이에서 「字」를 가지고 불렀다. 오늘날에는 이름은커녕, 동물 이름으로 부르는 수도 많다. 그보다는 역시 「아무개 형」 「아무개 누나」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텐데, 나이 비슷한 同級班 女學生에게는 「씨」밖에 적당한 호칭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4) 처가집

장가를 가면 장인, 장모에다가 처남, 처제, 처형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명칭과 호칭이 생겨난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를 것을, 「아버님」 「어머님」이라 하는 이도 있고, 가장 어려워 해야 될 처제에 대하여 이름을 부르거나 해라를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다. 장인, 장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나라 일부 지방의 습관이라고 해서 그러기도 하거니와, 「빙장어른, 장인어른」 「빙모님」하고 부르는 것은 새 시대의 언어감각으로 보아 좀 어색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역시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하고, 처제에 대해서는 꼭듯이 존대말을 쓰면서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처제씨」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처제도 손위 언니의 남편은 「형부」라 부르고, 처형도 동생 남편을 「서방님」이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다. 또 「처남의 맥」도 「큰 작은아씨」나 「작은 아씨」와 같은 「시누」의 남편을 「서방님」이라고 불러 왔다.

호칭도 하나의 言語習慣이어서, 처음에는 어색한 듯하나 자주 쓰는 집안의 傳統으로 보아서는 하나도 어색하거나 이상할 것이 없다. 8.15 광복 이후에 准將이니 巡警이니 하는 새 時代의 呼稱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졌었으나 오늘날에는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 집안에서의 呼稱도 마찬가지로, 新式 學校教育으로 말미암아 成人이 될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親族呼稱을 出嫁하고 나서야 되살려 쓰자니 어색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으나, 전통적인 언어 습관은 그런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생의 남편을 「서방님」이라고 부르기가 싫어서, 「김박사님」이라고 해서 얼버무리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5) 「님」의 濫用

「님」과 「-口」은, 존칭을 나타낼 때에 명사 끝에 붙이는 呼格 接尾辭다. 그래서 安東方言에서는 친정 아버지·어머니를 「아배」·「어매」,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아뻘」·「어뻘」이라 해서 구별하고, 중부 지방에서도 친정쪽은 「아버지·어머니」라 하고, 시댁쪽은 「아버님·어머님」이라 하여, 이름과 呼稱을 달리 해서 구별한다.

그리고 돌아간 아버지·어머니만 「아버님·어머님」이라고 했지, 살아 계신 아버지를 아들이 맞대 놓고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또 할아버지도 손자더러 「네 아비좀 오라고 해라」라고 했지, 보통 가정에서는 「네 아범더러 먹으라고 해라」라고 한다거나 「애 아범아!」라고 하지는 않았다.

요새 학생들은 대학에서 선생을 만나면 「教授님」이라고 부른다. 군대에 서 「將校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왜 「선생님」이라고 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학 교수가 「교수님」이면 중등 학교 이하는 「교사님」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또 「님」을 사람 이름이나 직함 밑에 붙여서 존경을 나타낸다고 해서 글에서는 「홍길동님」이라고 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앞에 얹혀 놓고 이름 밑에 「님」을 붙여서 「박삼돌님」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앞에 本人이 없는 데도 직함 밑에 「님」을 붙여서 「社長님께서」「金博士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고, 글에서도 직함이나 박사 밑에 「님」을 適用하는 것은 옳게 보이지 않는다. 역시 「님」은 맞대 놓고 부를 때에만 직함이나 학위 밑에 붙여서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다른 사람의 子女

옛날에는 3年마다 과거에서 33名씩밖에 안 뽑았는데도 判書(長官)자리는 여섯뿐이어서 감투 다툼이 심하였는데, 근래에는 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친구, 후배들 가운데 將軍, 長官 등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어느덧 自己自身이 그런 자리에 앉은 줄로 錯覺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다. 電話를 걸더라도 「어 거기, 金大領 있나?」라고 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장군인 듯이 행세하기도 한다. 이것이 남의 子女에 대한 呼稱에도 번져서, 남의 子女와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을 어려워 하는 마음에서, 「택의 따님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해야 될 터인데, 대뜸 「옥분이, 어디 갔어요?」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친한 同窓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현재 위치를 보아서 「김치장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친구의 父母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저 아무개입니다. 아드님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남을 어려워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가짐이다. 이러한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남을 부르더라도 언제나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명칭 하나, 호칭 하나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련님」「작은아씨」「서방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封建的인 잔재에서 나온 呼稱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人間社會를 形成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最小限度로 지켜야 될 人倫關係와 序列關係에서 나온 呼稱일 뿐이다.

다만 親族呼稱은 各家庭마다 조금씩 달리 쓰이기 때문에 一律적으로 規定짓기가 어려운 面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